

신안군, 지역 도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지역 출신 도의원과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설명하고 예산 확보 협의

“앞으로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위해 정책간담회 정례화 할 것”



신안군은 지난 2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박우량 군수, 지역 출신 전라남도의회 정광호 농수산위원장, 김문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군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협조가 필요한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삼해 신장~북룡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신안군 복합다기능부산물 지원사업 △도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사업 예산 지원 △가죽도 준공영제 여객선 운항손실금 도비 지원 등 30건의 현안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군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와 군간 재정부담률 조정과 도시행사업 확대 및 신규 선정 등을 위한 도의회의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지역 현안 수

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의원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기에 정책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도의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부서장들이 직접 도의원과 사업을 공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광호 의원은 “협조가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과 당위성을 가지고 시기에 맞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문수 의원은 “최선을 다해 지역 현안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도청 각 부서를 찾아가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며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신안=이덕주기자



영광군,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1인 캠페인’...광주시·전남도·제주도 동시 전개

영광군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코로나 19 방역을 고려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1인 캠페인 활동을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와 함께 동시에 전개하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관리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고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3월에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안하기, 불법소각 금지, 폐기물 배출 줄이기,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 등 군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정 도시환경과장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요령 및 배출저감대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사계절 아름다운 무안의 모습을 담아주세요”

무안군, 관광홍보 UCC 공모전 개최

무안군은 무안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담은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활용하고자 ‘2021 무안관광 홍보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UCC 공모전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여행사, 숙박업소를 돕고 사계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무안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실시된다.

공모내용은 무안의 관광지과 자연경관, 마을전경, 축제 등의 사계절 모습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거나 일정별·코스별 무안여행 방법을 홍보

를 소개하는 홍보영상 제작이며 연령과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작품 제작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공모전 참가를 원하는 경우 11월 1일까지 제작한 영상물을 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예비심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본심사를 거쳐 총 10점의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상금으로 최우수상(1점) 300만원, 우수상(2점) 150만원, 장려상(3점) 100만원, 입선(4점) 30만원을 수여하고 입상작은 11월 말 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군 SNS에 게재하고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며 “열정과 재능을 발휘하여 무안의 다채로운 매력을 영상에 담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함평군, 내달 19일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총 320동 12억4780만원 예산 투입...가구당 최대 344만원

함평군은 오는 2월 19일까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군은 12억4천7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20동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주택과 비주택(축사·창고) 등 소규모 건축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붕개량사업도 이번 대상에 포함됐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는 최대 344만 원, 창고·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는 최대 688만 원,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최대 610만 원이다.

최대 지원 금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적게는 183만 원(지붕개량), 많게는 516만 원(비주택)까지 더 지원한다.

다만 환경부가 2021년도 업무처리 지침을 현재 개정하고 있어 해당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등은 다소 변동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내달 19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면적, 노후정도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어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이라며,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이번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영암군, 귀농 영농정착 기술교육 교육생 모집

영암군은 안정적인 귀농귀촌생활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영농정착기술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2월 26일까지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 후 읍면농업인상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40명으로 영암군으로 전입한 귀농인을 우선 선발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일정은 3월부터 10월까지 20회, 100시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선배귀농인 정착사례, 주요작물재배기술, 농기계사용법, 귀농귀촌의 이해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영암=조대호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주